

2019년 김장 의향 및 김장채소류 수급 전망

국승용·한은수·최선우·임효빈·김다정·신성철·김창수

요 약

김장철 김치 조달 형태는 직접 담그는 비중이 가장 높으며, 시판김치 구매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금년 김장김치 조달 형태는 김장을 직접 담그는 가구의 비중이 6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최근 구매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시판김치는 19%로 나타남.
- 시판김치 구매 비중은 2014년 8%에서 2019년 19%로 증가 추세이며, 국내 매출액(4/4분기)도 2014년 335억 원에서 2018년 614억 원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수입산은 위생요인으로 선호도가 낮음.

김장철 배추 구매 형태는 신선배추보다 절임배추를 선호하며, 김장용 고추는 고춧가루, 마늘은 통마늘 형태 선호

- 2019년 절임배추 선호도는 55%로 신선배추(4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절임배추 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 중 향후 구매량을 줄이겠다는 비중도 38%로 높게 나타나 불만족 요인을 파악하고 산지에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함.
- 절임배추 불만사항으로는 절임 정도, 맛, 비위생적인 절임 및 포장 상태, 절임에 사용된 배추의 품질 저하 등임.
- 김장양념 주원료인 고추는 고춧가루 형태의 구매 의향이 68%로 가장 높으며, 마늘은 통마늘 형태가 66%로 높았음.

금년 김장 수요 및 김장용 주요 채소류 소비량은 작년보다 감소 전망

- 금년 4인 가족 기준, 김장용 배추 포기 수는 22.3포기로 작년(23.4포기)보다 1.1포기 감소하고, 무도 작년(9.0개)보다 감소한 8.7개로 조사됨. 가족 수가 줄거나 김치 소비량이 줄 것이라는 요인(48%)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예상됨.
- 건고추와 마늘 가격은 작년보다 낮겠지만, 소비량은 작년보다 각각 3%, 1%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김장 주원료인 배추, 무 가격 강세 영향으로 김장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 금년 김장 시기는 11월 하순~12월 상순에 50% 이상 이루어지겠으며, 기상청 전망 결과 김장철인 11~12월 평균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예보되어 지역별 김장이 다소 늦춰질 것으로 예상됨.

금년 김장배추, 무 공급량은 작년보다 감소하나, 건고추, 마늘은 증가 전망

- 금년 김장용 주요 채소류 가격은 배추와 무는 생산량 감소로 작년보다 높겠으나, 건고추, 마늘은 생산 및 저장량 증가 영향으로 작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됨.
- 금년 배추, 무 가격 강세 영향으로 김장 비용(4인 가족 기준)은 작년(26만 4천 원) 및 평년(24만 원)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됨.

01

소비자의 2019년 김장 의향

1.1. 조사개요

전국의 가구 소비자 60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 실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에서 구축하고 있는 전국의 가구 소비자 601명을 대상으로 금년 김장철(10~12월)의 김장김치 조달 형태, 구매 형태, 구매처 등을 조사하였음.

- 소비자 조사는 2019년 10월 17~18일 온라인 조사를 통하여 실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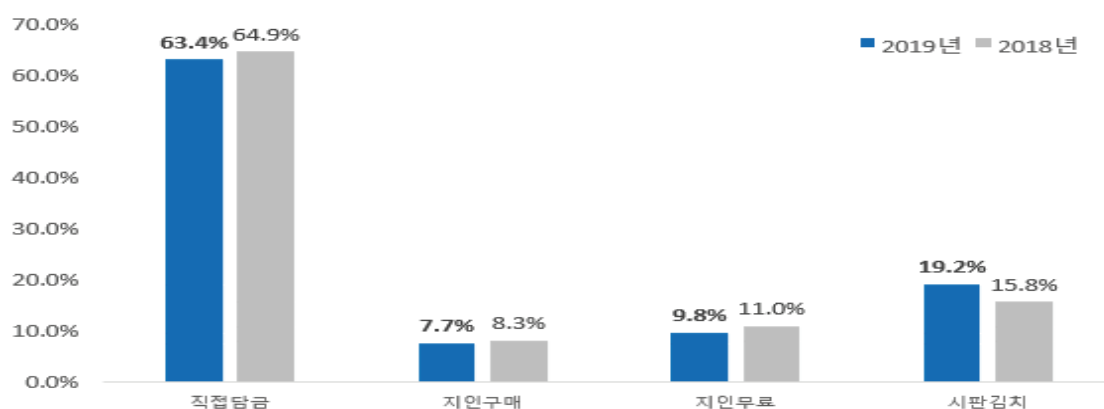
1.2. 2019년 김장김치 조달형태

김장김치 조달은 김장을 직접 담그는 비중이 여전히 가장 높지만, '시판(포장)김치 구매' 비중이 증가 추세

2019년 소비자의 김장김치 조달 형태를 보면, 김장을 직접 담그는 비중이 63%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시판 김치를 구매하는 비중이 19%, 김장김치를 지인에게 무료로 조달받거나 구매하는 비중은 각각 10%, 8%임.

- 올해 김장김치를 담그겠다는 가구의 비중이 전년 65%에서 63%로 소폭 감소하였지만, 시판김치를 구매하려는 비중은 2018년 16%에서 2019년 19%로 증가하였음.

〈그림 1〉 가구 소비자의 김장김치 조달형태별 비중



2019년 김장 의향 및 김장채소류 수급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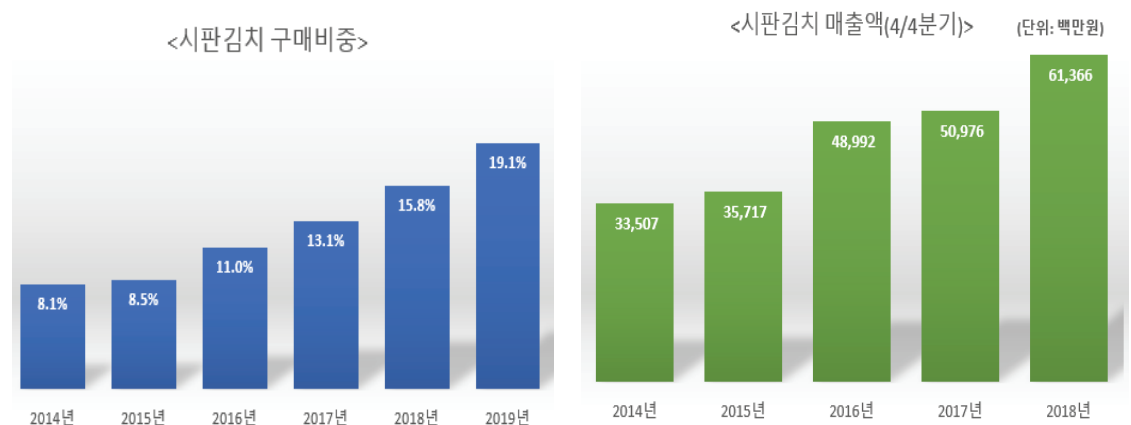
김장김치를 직접 담그는 이유로는 '가족이 선호하는 입맛을 맞출 수가 있어서(52%)'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이 '시판김치보다 원료 품질을 믿을 수 있어서(34%)', '절임배추나 김장양념(김치소) 판매 등으로 김장하기 편리해져서(7%)' 등의 순으로 맛과 원료 품질을 중시하고 있음.

- 반면, 김장김치를 담그지 않고 주로 시판김치를 구매하려는 이유는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 구매가 가능해서(48%)', '김치 담그기가 번거롭거나 바빠서(26%)'가 70%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함.

연도별 시판김치 구매 비중은 2014년 8%에서 2019년 19%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시판김치 국내 매출액(4/4분기)도 2014년 335억 원에서 2018년 614억 원으로 증가하였음.

- 시판김치는 행락철 수요가 많은 3/4분기의 매출 비중이 35%로 가장 높고, 김장철인 4/4분기는 24%임.
- 시판김치 주 구매처 비중은 '인터넷 또는 TV 홈쇼핑(37%)'과 '대형유통업체(마트, 백화점 등)(32%)'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그림 2> 소비자 연도별 시판김치 구매 비중, 시판김치 국내 매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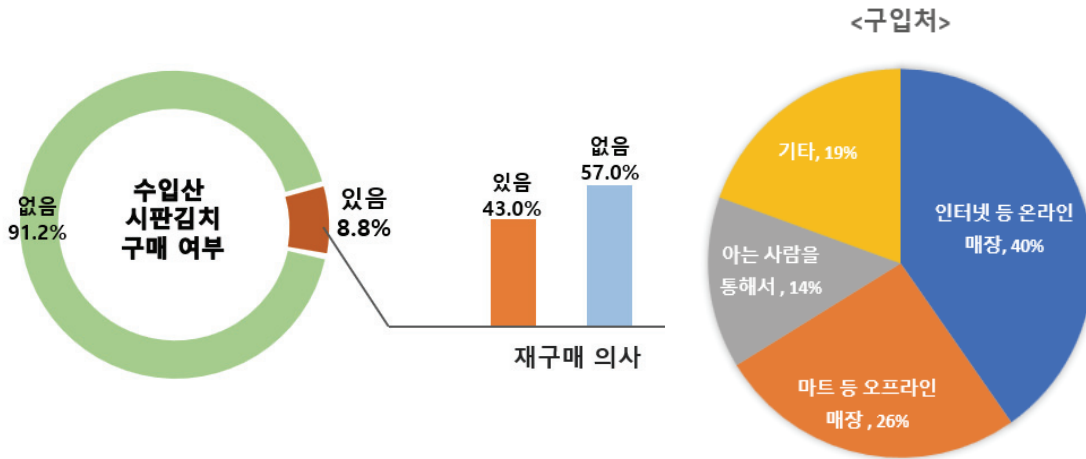


자료: 식품산업통계정보(FIS).

수입산(중국산) 시판김치에 대한 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전체 9%로 나타났지만, 위생상태가 의심되어 수입산을 구매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중은 91%로 여전히 높게 나타남.

- 수입산 시판김치를 구매하는 이유는 '가격이 저렴해서(49%)'가 가장 높고, 다음이 '호기심에 구매(23%)'였으며, 주 구매처는 '인터넷 등 온라인 매장(40%)', '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26%)'임.
- 소비자 대부분은 향후 수입산 시판김치에 대한 구매 의향이 높지 않았으나, 수입산 시판김치 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 중 43%는 재구매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 수입산 시판김치 구매 경험, 재구매 의향, 구매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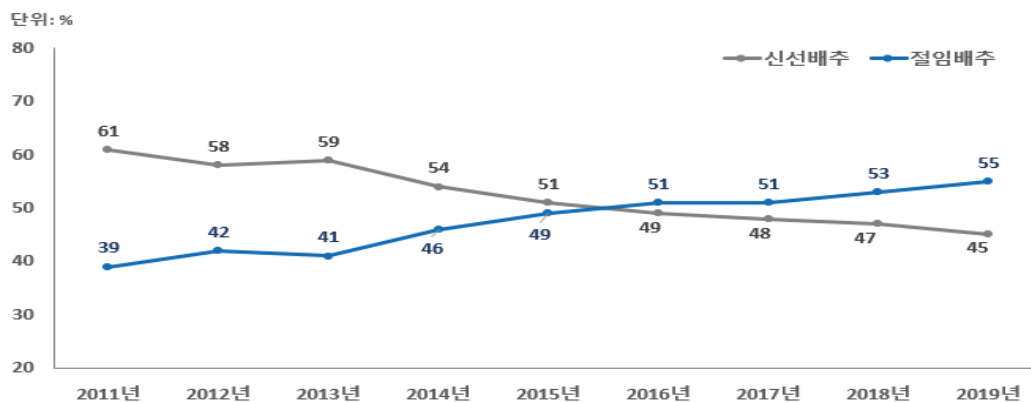
1.3. 2019년 김장김치 담그는 소비자의 구매 패턴

김장배추는 신선배추보다 절임배추 형태를 선호하며, 김장용 고추는 고춧가루 형태, 마늘은 통마늘 형태 선호

2019년 김장을 담그는 소비자의 김장배추 형태별 구매 선호도는 절임배추(55%)가 신선배추(45%)보다 높으며, 절임배추 구매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신선배추 구매는 감소 추세를 보임.

- 절임배추를 구매하는 이유는 ‘절임과정이 번거로워서(68%)’, ‘담그는 시간이 절약돼서(23%)’가 대부분이며, 신선배추 구매 이유로는 ‘절임배추의 위생, 포장 등의 상태를 믿을 수 없어서(29%)’, ‘부모, 친지 또는 지인 등으로부터 손쉽게 얻을 수 있어서(28%)’, ‘절임배추를 사용해 담그면 입맛에 맞지 않아서(20%)’ 등임.

〈그림 4〉 김장배추의 구매형태별 선호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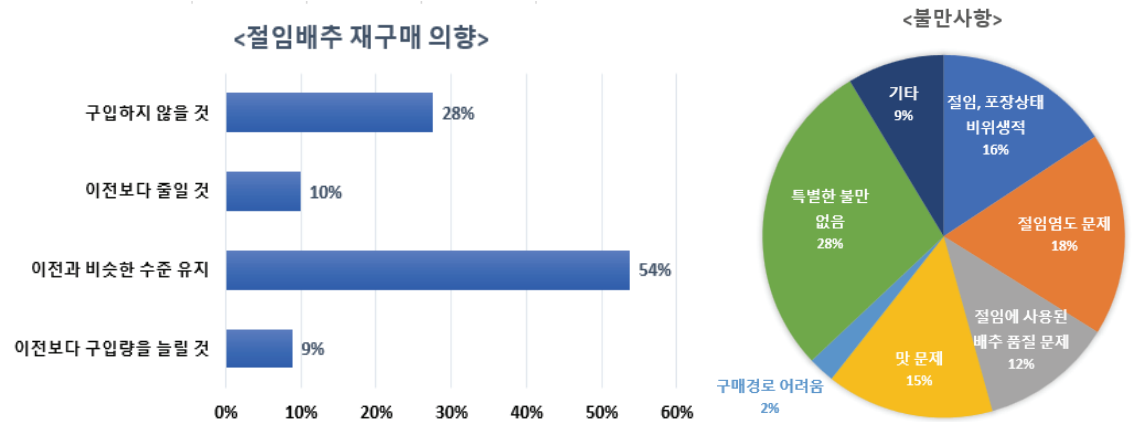


2019년 김장 의향 및 김장채소류 수급 전망

절임배추를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의 불만족 요소를 보면, 맛과 위생, 절임 정도의 적정 수준, 포장 상태, 절임에 사용된 배추 품질 등을 지적하고 있음.

- 절임배추 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 중 향후 구매량을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응답한 비중이 54%로 여전히 높게 나타났으나, 구매를 하지 않거나 줄이겠다는 비중도 38%로 높게 나타남.
- 절임배추 구매량을 줄이는 이유는 ‘절임 정도가 적당하지 않다(18%)’, ‘절임이나 포장상태가 비위생적이다(16%)’, ‘김치를 담글 경우 맛이 없다(15%)’, ‘절임에 사용된 배추의 품질이 나쁘다(12%)’ 등임.

<그림 5> 절임배추 재구매 의향 및 불만 사항



절임배추 구매처는 ‘생산농가와 직거래’가 2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부모, 친지, 지인을 통한 구매(19%)’, ‘대형유통업체(마트, 백화점 등)(17%)’, ‘인터넷 쇼핑 및 TV홈쇼핑(14%)’ 등의 순임.

- 신선배추는 도매시장 또는 재래시장에서 구매하는 비중이 32%로 가장 높아 차이를 보이고 있고, 다음으로 농가와 직거래 비중이 19%, 대형유통업체(마트, 백화점 등) 16%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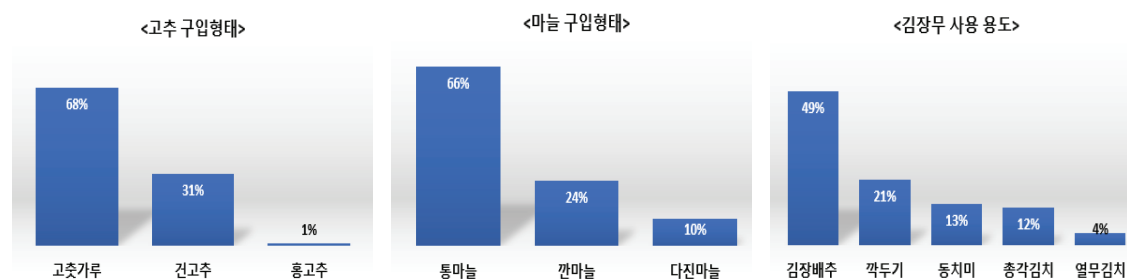
김장김치에 주로 사용되는 양념채소류인 고추는 고춧가루 형태의 구매 의향이 68%로 가장 높으며, 건고추 31%, 홍고추 1% 순임. 마늘의 경우 통마늘 구매 의향이 66%로 가장 높으며, 깎마늘 24%, 다진마늘 10% 순임.

- 고추는 건고추나 홍고추 등 원형 형태보다는 사용하기 편리한 고춧가루 형태를 주로 구매하는 소비자가 많고, 김장철(11~12월) 이전에 구매하는 비중이 85%로 높음.
- 마늘은 통마늘 형태를 선호하는 소비자가 많았는데, 이는 깎마늘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을 뿐만 아니라 품질 확인 등이 용이하므로 보통 김장을 담글 때 통마늘을 직접 탈피하여 사용하는 비중이 높음.

김장을 담글 경우 김장양념인 김치소는 시간 절약, 편리성 등의 이유로 구매하지만 비중이 크게 낮으며(5% 미만), 고춧가루, 통마늘 등 원재료를 구매하여 김치소를 직접 만드는 소비자가 여전히 많음.

김장무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경우는 주로 김치소 또는 김장 원료로 사용하는 비중이 49%로 가장 높으며, 깍두기(21%), 동치미(13%), 총각김치(12%), 열무김치(4%) 등을 만드는 데 원료로도 사용하고 있음.

〈그림 6〉 양념채소류(고추, 마늘) 구매 형태, 김장무 사용 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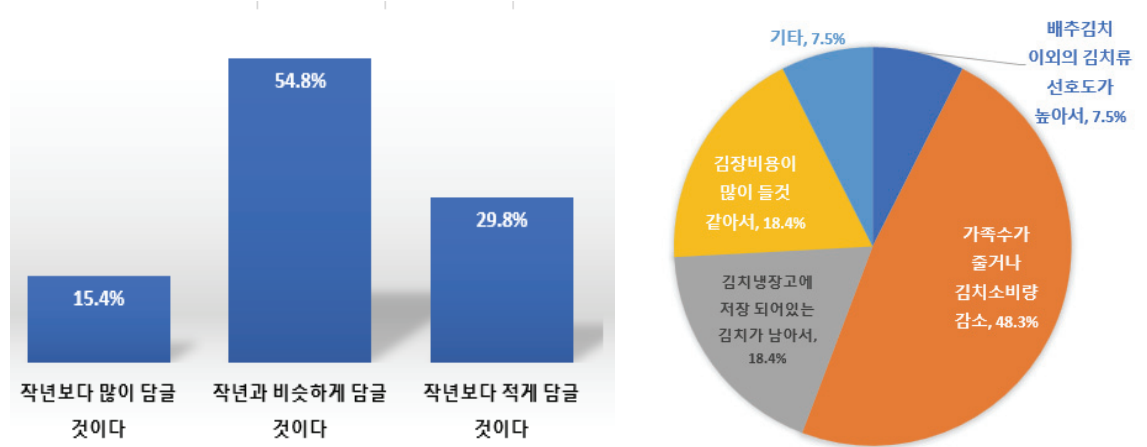
1.4. 김장철 김장 수요 전망

2019년 김장 수요 및 김장용 주요 채소류 소비량은 작년보다 감소 전망

2019년 김장 소비 의향 조사 결과, ‘작년과 비슷하게 담글 것이다’라는 응답이 55%로 가장 높은 가운데, ‘작년보다 적게 담글 것이다’라는 비중이 30%인 반면 ‘작년보다 많이 담글 것이다’는 15%에 그쳐 금년 김장 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

- 김장 소비량을 줄이겠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가족 수가 줄거나 김치 소비량이 줄어서(외식 증가 등)(48%)’가 작년에 이어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김장 비용이 많이 들것 같아서’와 ‘김치냉장고에 저장되어 있는 김치가 남아서’가 각각 18%로 나타남.
- 김치를 작년보다 많이 담그겠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전체의 15%에 불과하나, ‘김치냉장고가 생겨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29%)’, ‘절임배추 등으로 김장 담그기가 편리해져서(28%)’, ‘친지나 이웃에게 나눠주기 위해서(21%)’ 등의 이유로 김장 소비를 늘리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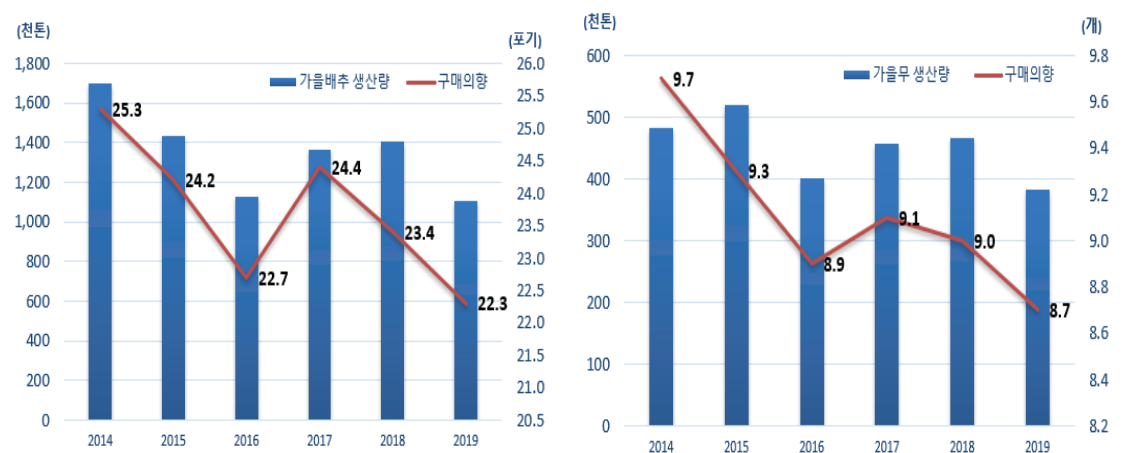
<그림 7> 2019년 김장 소비 의향 및 작년보다 감소한 이유



올해 4인 가족 기준, 김장용 배추 포기 수는 22.3포기로 작년(23.4포기)보다 1.1포기 감소하고, 무는 작년(9.0개)보다 0.3개 감소한 8.7개로 조사됨. 금년 김장용 배추 포기 수는 최근 5년간(2014~2018년) 가을배추 생산량이 가장 적었던 2016년(22.7포기)과 비슷하며, 무도 2016년(8.9개) 수준임.

- 또한, 김장양념 주원료인 건고추와 마늘은 가격이 작년보다 낮음에도, 소비량은 작년보다 각각 3%, 1% 줄 것으로 예상됨. 이는 김장 주원료인 배추, 무 가격 강세 영향으로 김장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그림 8> 가을배추, 무 생산량 및 구매 의향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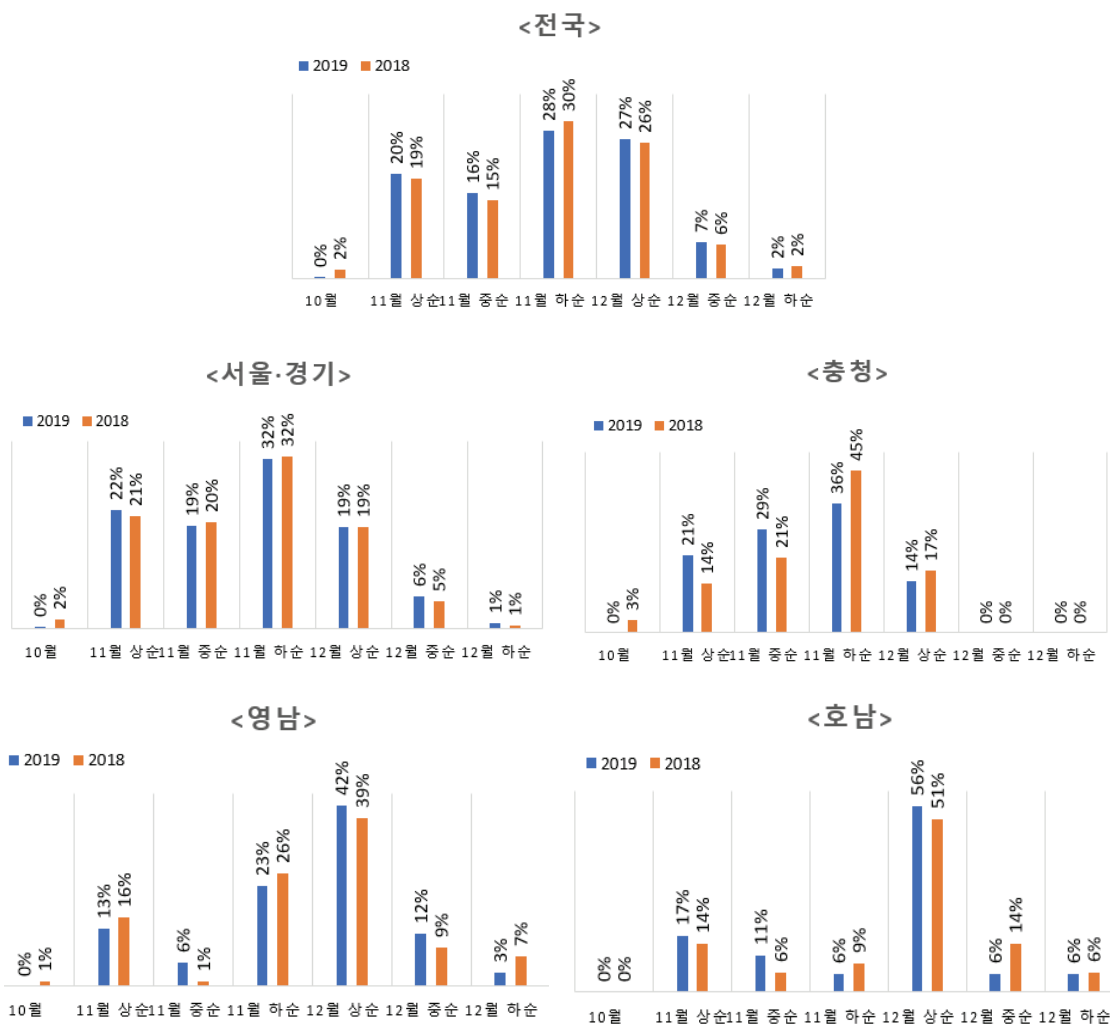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본부.

2019년 김장 시기는 작년과 비슷한 11월 하순~12월 상순에 50% 이상 이루어지며,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충청은 11월 중·하순, 호남과 영남은 12월 상순에 김장을 가장 많이 담글 것으로 파악됨.

- 김장 적정 시기는 일 평균기온이 4℃ 이하이고, 일 최저기온이 0℃ 이하로 유지될 경우가 적기이어서 기상청 3개월 기상전망 결과(기상청 날씨누리) 올해 11~12월 평균기온이 평년(11월 7.0~8.2℃, 12월 1.0~2.0℃)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예보되어 있어 지역별로 김장이 다소 늦춰질 것으로 예상됨.
- 김장 적정 시기(평년 기준)는 서울 11월 29일, 대전 12월 1일, 대구 12월 5일, 광주 12월 11일, 부산 1월 2일임.¹⁾

<그림 9> 금년 김장 시기 비교(작년 대비)



1) 자료 출처: 웨더아이(www.weather.co.kr).

02

2019년 김장채소류 수급 전망 및 시사점

금년 김장 시기(11~12월)에 출하되는 가을배추, 무 공급량은 작년보다 감소, 건고추·마늘은 증가 전망

2019년 가을배추 생산량은 재배면적 및 단수 감소 영향으로 작년 및 평년보다 각각 21%씩 감소한 110만 4천 톤이며, 가을무는 작년 및 평년보다 각각 18%씩 감소한 38만 3천 톤임.

- 가을배추, 무는 생산량 증가로 작년 주 출하기(11~12월) 가격이 낮아 금년 재배면적이 감소하였고, 9~10월 세 차례 태풍 발생으로 작황이 평년보다 부진한 상황임.

〈표 1〉 가을배추, 무 추정 생산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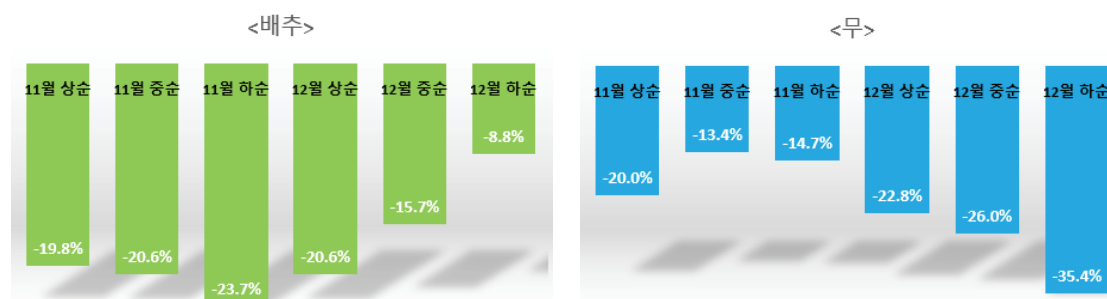
구분	가을배추			가을무			
	재배면적(ha)	단수(kg/10a)	생산량(천 톤)	재배면적(ha)	단수(kg/10a)	생산량(천 톤)	
2019년	10,968	10,065	1,103.9	5,344	7,165	382.9	
2018년	13,313	10,547	1,404.2	6,095	7,664	467.1	
평년	13,237	10,584	1,400.9	5,756	8,148	469.0	
증감률 (%)	전년비	-17.6	-4.6	-21.4	-12.3	-6.5	-18.0
	평년비	-17.1	-4.9	-21.2	-7.2	-12.1	-18.4

주: 2019년 단수 및 생산량은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김장철(11~12월) 배추 순별 출하량은 11월 하순의 출하량 감소 폭(평년 대비 -24%)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며, 12월에는 출하량 감소 폭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무는 출하량 감소 폭이 12월로 갈수록 확대될 전망이다.

- 배추는 김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11월 하순 출하량 감소 폭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나, 12월 부터는 전남(해남)지역에서 작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가을배추 출하가 본격화되고, 겨울배추 출하도 시작되면서 출하량 감소 폭은 11월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 반면, 무는 가을무 작황이 부진하고, 태풍의 직접적인 피해를 본 제주지역의 월동무 초기(12월) 출하량도 감소하여 11월보다 12월 출하량이 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10〉 배추, 무 김장철(11~12월) 평년 대비 순별 출하량 감소율



2019년 김장철(11~12월) 배추 가락시장 상품 도매가격은 태풍 등의 영향으로 김장배추 작황이 부진하여 전년(1,460원) 및 평년(1,980원)보다 높은 2,800원/포기 내외로 예상되며, 무도 전년(680원) 및 평년(830원)보다 높은 2,300원/개로 전망

- 금년 절임배추 도매가격은 전년 및 평년 수준인 24,000원보다 각각 33%, 35% 높은 32,000원/(20kg, 7~10포기) 내외로 조사됨.

〈표 2〉 김장배추, 무 도·소매가격 동향(상품)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평년
절임배추(20kg)		22,000	22,000	26,000	25,000	24,000	24,000
신선배추(포기)	도매	1,037	1,383	2,773	1,717	1,460	1,983
	소매	1,940	2,156	3,805	2,662	2,937	3,135
무(개)	도매	829	812	2,054	833	683	825
	소매	1,308	1,357	2,621	1,456	3,400	11,4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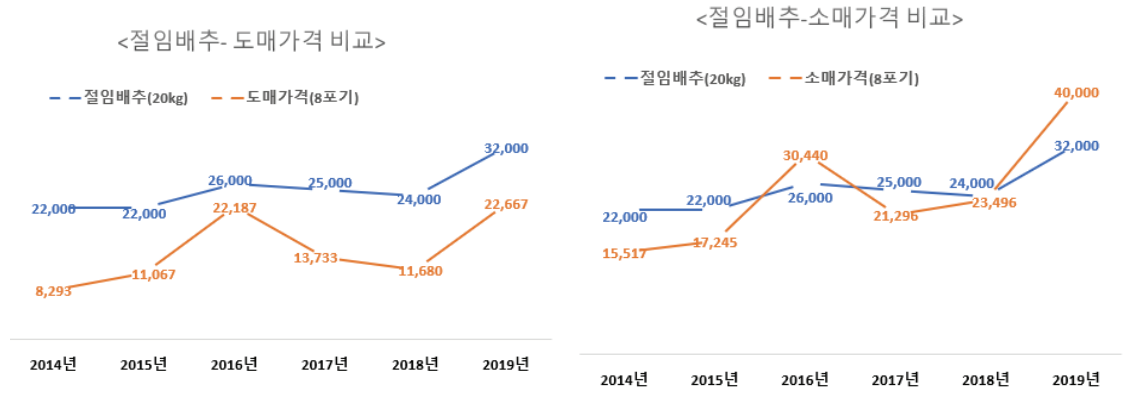
주: 연도별 도·소매가격은 11~12월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대아청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KAMIS).

신선배추 도·소매가격은 매년 생산량 변화에 따라 절임배추보다 변동성이 큰 것으로 나타남. 특히, 가을배추 생산량이 적었던 2016년과 2019년의 경우 신선배추 가격은 크게 상승한 반면, 절임배추 가격 상승 폭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생산량이 많았던 시기에 비해 가격 격차가 줄어들었음.

- 2019년의 신선배추(8포기 기준) 소매가격은 상승하여 절임배추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생산량이 부족한 시기에는 신선배추보다 절임배추를 구매하는 것이 가격 측면에서 이점이 될 수 있음.
- 다만 절임배추 구매 시 불만 사항으로 제기되었던 절임염도, 맛, 배추 품질 등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면 가격과 상관없이 신선배추를 구매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11> 절임배추와 신선배추 도·소매 가격 비교



주: 절임배추 20kg은 신선배추 약 8포기가 사용된다고 가정하였으며, 2019년은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대야청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KAMIS).

2019년산 건고추 생산량은 작년보다 증가한 7만 7천~8만 1천 톤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되어 가격은 하락 전망

금년 김장철 화건 고추 상품 600g당 도매가격은 작년(19,830원)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됨. 금년산 난지형 마늘 저장량은 작년보다 3% 증가하여 김장철 간마늘 kg당 도매가격은 작년(5,940원)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됨.

<표 3> 건고추 생산량, 마늘 재고량 추정

구분	건고추			마늘(천 톤)			
	재배면적(ha)	단수(kg/10a)	생산량(천 톤)	입고량	출고량	재고량	
2019년	31,644	244~256	77.2~81.0	105.3	22.7	78.6	
2018년	28,824	248	71.5	94.6	17.0	76.4	
평년	31,840	253	80.7	107.0	20.0	83.9	
증감률 (%)	전년비	9.8	-1.6~3.2	8.0~13.3	11.3	33.3	2.9
	평년비	-0.6	-3.6~1.2	-4.3~0.4	-1.6	13.3	-6.3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본부.

<표 4> 건고추·마늘 도·소매가격 동향(상품)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평년	
건고추(kg)	도매	14,168	13,414	9,670	21,114	19,832	15,805
	소매	16,714	17,817	17,695	16,539	28,543	17,409
간마늘(kg)	도매	4,658	6,976	7,334	6,519	5,941	6,479
	소매	6,667	9,482	10,320	9,550	8,812	9,2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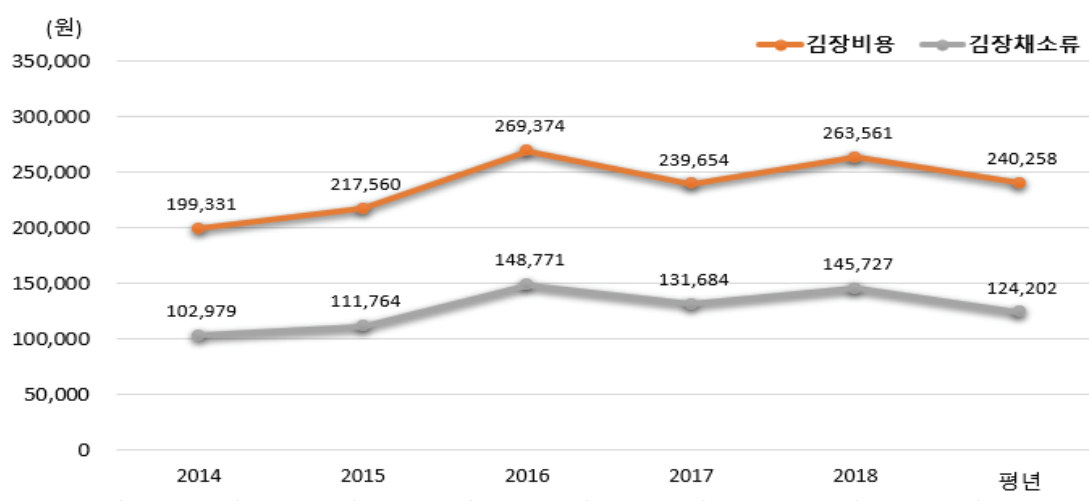
주: 연도별 도·소매가격은 11~12월 평균임.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KAMIS).

2019년 김장 비용(4인 가족 기준)은 작년(26만 4천 원) 및 평년(24만 원)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

이는 전체 김장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배추, 무 등 채소류 가격이 높기 때문임.

- 전체 김장 비용에서 김장채소류(배추, 무, 건고추, 마늘)가 차지하는 비중은 52%(평년 기준) 수준이며, 매년 김장채소류 가격 변화에 따라 김장 비용도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12〉 연도별 김장 비용 및 김장채소류 가격 추이



주: 4인 가족 기준 김장채소류 가격은 배추 20포기, 무 10개, 고춧가루 1.86kg, 마늘 1.2kg 기준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KAMIS).

금년 정부의 김장채소 수급안정 대책은 ‘품목별 수급 상황을 감안한 공급조절로 과도한 수급 불안을 차단하고’, ‘할인행사, 직거래, 정보 제공’ 등으로 소비자 김장 비용 경감, 김장 캠페인·기부 등을 통해 김장 문화 확산 및 소비 촉진, 농가 기술 지도 강화 등으로 김장배추, 무의 안정적인 생산을 지원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함.

- 배추는 10월 하순~11월 상순 수매비축(3.5천 톤) 및 출하조절시설(2.5천 톤) 저장 물량을 수급상황에 따라 도매시장에 집중 공급하고, 계약재배 물량(44천 톤)을 활용한 출하조절을 통해 김장 집중 시기(11월 하순~12월 순)에 공급량 확대
- 무는 10월 하순~11월 상순 수매비축(4천 톤) 물량을 수급상황에 따라 도매시장에 집중 공급
- 고추, 마늘 등 양념채소는 김장철 특판전, 홍보 강화 등의 대책으로 김장철 가격 안정 및 국내산 소비 확대를 유도

03

시사점

금년 김장은 평년보다 조금 늦게 담그되, 김치의 품질 등을 고려할 때 김장 양을 많이 줄이지 않는 노력 필요

가을배추, 무 생산 감소로 김장 비용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에서는 비용 증가 폭을 10% 이하로 관리할 계획임. 김장 수요가 위축되지 않도록 정책 당국과 소비자의 노력이 필요함.

가을배추에 비해 겨울배추의 생산량이 상대적으로 풍부하여, 김장 시기를 12월 이후로 연기하면 상대적으로 김장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김장배추 공급량이 12월로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김장철 평균기온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예보되어 김장을 예년보다 조금 늦게 담글 필요도 있음.

최근 편리성, 시간 절약 등의 이유로 신선배추보다 절임배추를 구매하여 김장을 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으나, 그 품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산지에서는 절임배추 절임도, 품질 및 위생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함.

시판김치 구매 비중 증가 등 김장김치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장기적으로 가을배추, 무 생산 규모를 자율적으로 조절하여, 수요 감소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농가의 수익성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사전적인 노력이 요구됨.

참고문헌

- 기상청 날씨누리. <<http://www.weather.go.kr/weather/main.jsp>>
식품산업통계정보. <<https://www.atfis.or.kr>>
서울시농수산물공사, <<https://www.garak.co.kr/main/main.do>>
웨더아이, <<https://www.weatheri.co.kr>>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KAMIS), <<https://www.kamis.or.kr/customer/main/main.do>>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index/index.do>>

감 수 황익식 부원장 061-820-2011 eshwang@krei.re.kr
내 용 문 의 국승용 선임연구위원 061-820-2275 gouksy@krei.re.kr
자 료 문 의 성진석 책임전문원 061-820-2212 jssaint@krei.re.kr

※ 「KREI 현안분석」은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KREI 현안분석 제68호

2019년 김장 의향 및 김장채소류 수급 전망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2019. 11.
발 행 인 김홍상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